

## 일부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와 미혼여성의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조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정재중, 김동일

### ABSTRACT

A Study on the Cognition of Puerperants in postpartum and  
Maiden girls about Postpartum care

Jae-Joong Jung, Dong-Il Kim  
Dept. of OB & 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Purpose** : We studied to analyze the cognition and realities of postpartum care and to aid the spread of oriental medicine in postpartum care and to get a basic guideline of postpartum care home and K.M.D.'s role model of postpartum care.

**Methods** : We has made questions about the cognition and realities of postpartum care to 2 groups they are puerperants in postpartum care home at Gangdong-gu or Songpa-gu and maiden girls from December 2005 to April 2006. And then we analyzed collected data by using statistics analysis program, SPSS.

**Results** : Almost of 2 group felt sympathy for importance of postpartum care. Puerperants pay postpartum care for without regard to economic state. Essential factors to choice a postpartum care home were sanitary condition and professionalism at taking care of infant and puerperant. 60.4% of puerperants in postpartum care home wanted segregation of infant and puerperant. The reason is for taking rest and lack of confidence at taking care infant. 69.2% of puerperants Would like to taking Herb-medicine for postpartum care. Only 13.4% of puerperants need postpartum care home is operated by K.M.D.

**Conclusion** : It is hard to open postpartum care home by K.M.D. independently. But Puerperants has well-expectation in postpartum care by Korean medicine.

**Key words** : postpartum care, puerperant, maiden girl

## I. 緒 論

분만 후 첫 6주를 산욕기라고 하며, 이 기간 동안에 산모의 생식기관은 임신전의 상태로 회복된다<sup>1-3)</sup>. 이 시기의 모성은 임신과 분만의 경험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건강한 대상자이며, 이와 더불어 영아 및 새로운 가족 구조에 적응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어 여러 종류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간호를 필요로 한다<sup>4)</sup>.

산후조리 과정은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서 친모, 시모, 산모조력자로부터 산모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간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생아 양육 초기 단계의 여러 활동들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며,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예전에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산후조리가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핵가족, 맞벌이 등 현대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와 함께 가사를 분담하지 않는 우리나라 가족 사회 문화 특성에 따른 소비자들의 욕구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산후조리원이 생겨났다<sup>5)</sup>.

산후조리원이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원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문적인 산후조리 시스템에 의하여 산후조리를 한 후 건강한 상태로 퇴소하는 기관을 말한다<sup>6,7)</sup>. 이에 대해 황 등<sup>8)</sup>은 상업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장소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산후조리원은 1996년 11월에 국내 최초로 등장하였고, 199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

여 현재 각 업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다<sup>9)</sup>.

본 연구에서는 산후조리원에 재원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소비자인 산모와 미래의 잠재적 산후조리 서비스 소비자인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여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각 대상군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향후 산후조리 분야에서 한의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얻어진 결과를 이 논문을 통해 보고하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산후조리 분야에서의 한의사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산후조리를 위해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에 위치한 사설 산후조리원에 재원중인 산모, 근무지나 거주지가 서울인 미혼여성을 조사대상군으로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응답한 총 146명을 조사대상군으로 하였다.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군의 경우,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KT 전화번호 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산후조리원 5곳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고, 산후조리원의 원장과 면담을 통해 연구의 목적, 내용, 절차를 설

명하여 연구에 동의한 3곳에서 원장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한 후 회수하였다. 그 후 산모군의 연구대상 수가 미혼여성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2006년 4월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KT 전화번호 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산후조리원 5곳을 연구자가 방문하여 연구에 동의한 1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미혼여성군의 경우 근무지나 거주지가 서울인 미혼여성을 연구자 또는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직접 혹은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였다.

### 3.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을 구하고, 필요에 따라 교차분석, 분산분석(one-way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 III. 結 果

설문에 응답한 각 대상군의 숫자는 산후조리원 재원산모군 54명, 미혼여성군 92명이었다.

### 1.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군(이하 산모군)과 미혼여성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 연령

산모군의 최소 연령은 25세, 최대 연령은 41세, 평균 연령은 31.1±3.8세였다.

미혼여성군의 연령은 18세에서 34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24.0±3.4세였다.

#### 2) 학력

산모군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7명으로 13.0%, 전문대 졸업이 18명으로 33.3%, 대학교 졸업이 25명으로 46.3%, 대학원 졸업이 4명으로 7.4% 분포하였다.

미혼여성군의 학력은 무응답 1명을 제외한 91명 중,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36명으로 39.6%, 전문대 졸업이 15명으로 16.5%, 대학교 졸업이 40명으로 44.0%였다.

#### 3) 월 평균 수입

경제생활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월 평균 수입을 묻는 문항에 대해 산모군의 경우에는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53명 중 199만원 이하가 13명으로 24.5%, 200~299만원 사이가 24명으로 45.3%, 300~399만원 사이가 9명으로 17.0%, 400만원 이상이 7명으로 13.2% 분포하였다.

미혼여성군의 평균 월수입은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100만원 미만이 21명으로 23.1%, 100~199만원이 11명으로 12.1%, 200~299만원이 28명으로 30.8%, 300~399만원이 17명으로 18.7%, 400만원 이상이 14명으로 15.4% 분포하였다.

#### 4) 산모군의 가족의 구성형태

가족의 구성형태를 보면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45명으로 83.3%를 차지하였고, 시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7명으로 13.0%, 기타가 2명으로 3.7% 분포하였다(표 1).

표 1. 산모군의 가족의 구성형태

	No.	%
핵 가족	45	83.3
부부와 시부모	7	13.0
기 타	2	3.7
Total	54	100.0

## 2.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

### 1) 산후조리의 필요성

산모군의 경우 산후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2명으로 96.3%였고,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2명으로 3.7%였다.

미혼여성군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8명으로 95.7%였고,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4명으로 4.3%였다(표 2).

표 2. 산후조리의 필요성

	산모군		미혼여성군	
	No.	%	No.	%
꼭 필요하다	52	96.3	88	95.7
하면 좋고 안해도 상관없다	2	3.7	4	4.3
필요없다	0	0.0	0	0.0
모르겠다.	0	0.0	0	0.0
Total	54	100.0	92	100.0

### 2) 산후조리가 필요한 이유

산모군이 생각하는 산후조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산모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1명으로 47.7%, 임신 전 상태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16명으로 36.4%, 산후풍 예방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3명으로 6.8%, 신생아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명으로 4.5%, 산모의 휴식을 위해서, 기타가 각각 1명으로 2.3% 분포하였다.

미혼여성군이 생각하는 산후조리의 필요 이유로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명으로 70.7%, 임신 전 상태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16명으로 17.4%, 산후풍 예방을 위해

서라는 응답이 9명으로 9.8%, 휴식을 위해서, 신생아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1명으로 1.1% 분포하였다(표 3).

표 3. 산후조리가 필요한 이유

	산모군		미혼여성군	
	No.	%	No.	%
산모 건강	26	48.1	65	70.7
임신 전 상태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18	33.3	16	17.4
산후풍 예방	6	11.1	9	9.8
산모의 휴식	1	1.9	1	1.1
신생아의 건강	2	3.7	1	1.1
기타	1	1.9	0	0.0
Total	54	100.0	92	100.0

### 3) 산후조리의 적정기간

산모군은 적정 산후조리 기간에 대한 질문에 2주 이내라고 답한 경우가 1명으로 1.9%, 3주 이내라고 답한 경우가 10명으로 18.5%, 4주 이내라고 답한 경우가 16명으로 29.6%, 6주 이내라고 답한 경우가 13명으로 24.1%, 8주 이내라고 답한 경우가 9명으로 16.7%, 12주 이내라고 답한 경우가 5명으로 9.3% 분포하였다.

미혼여성군은 적정 산후조리의 기간에 대한 질문에 2주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는 4.3%, 3주라고 응답한 경우는 12.0%, 4주라고 응답한 경우는 23.9%, 6주라고 응답한 경우는 7.6%, 8주라고 응답한 경우는 16.3%, 12주라고 응답한 경우는 27.2%, 모르겠다는 응답이 5.4%, 기타 3.3% 분포하였다(표 4).

표 4. 산후조리의 적정기간

	산모군		미혼여성군	
	No.	%	No.	%
2주 이내	1	1.9	4	4.3
3 주	10	18.5	11	12.0
4 주	16	29.6	22	23.9
6 주	13	24.1	7	7.6
8 주	9	16.7	15	16.3
12 주	5	9.3	25	27.2
기 타	0	0.0	3	3.3
모르겠다	0	0.0	5	5.4
Total	54	100.0	92	100.0

4) 산모군이 생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의 적정 조리기간

산모군은 산후조리원에서의 적정 조리  
기간에 대한 질문에 2주라고 답한 경우  
가 14명으로 25.9%, 3주라고 답한 경우  
가 32명으로 59.3 %, 4주라고 답한 경우  
가 7명으로 13.0%, 6주라고 답한 경우가  
1명으로 1.9% 분포하였다(표 5).

표 5. 산후조리원에서의 적정 조리 기  
간(산모군)

	No.	%
2주	14	25.9
3주	32	59.3
4주	7	13.0
6주	1	1.9
Total	54	100.0

5) 산모군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를 하는 이유

산후조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라고 답한 경우가 26명으로 48.1%, 산후  
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한  
경우가 18명으로 33.3%, 신생아 양육에  
자신이 없어서라고 답한 경우가 9명으로  
16.7%, 기타가 1명으로 1.9% 분포하였다

(표 6).

표 6. 산모군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조리를 하는 이유

	No.	%
산후조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26	48.1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18	33.3
신생아 양육에 자신이 없어서	9	16.7
기 타	1	1.9
Total	54	100.0

6) 산모군이 생각하는 적정 산후조리  
총 비용

산모군이 생각하는 적정 산후조리 총  
비용에는 1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경우  
가 8명으로 14.8%, 100~199만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35명으로 64.8%, 200~299  
만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7명으로 13.0%,  
300~399만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3명으  
로 5.6%, 4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  
가 1명으로 1.9% 분포하였다(표 7).

표 7. 적정 산후조리 총 비용

	No.	%
100만원 미만	8	14.8
100~199만원	35	64.8
200~299만원	7	13.0
300~399만원	3	5.6
400만원 이상	1	1.9
Total	54	100.0

7) 산모군이 책정한 산후조리 예산

산모군 중 무응답 6명을 제외한 48명  
은 총 예산으로 110만원에서 650만원, 평  
균 233±118만원을 책정하였다. 그 중 산  
후조리원에서의 소요예산으로 47명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평균 173±98만원을 책정하였고, 산후조리원 외 요양비용으로 18명이 10만원에서 150만원사이로 평균 64±39만원을 책정하였고, 한약을 통한 관리에는 21명이 15만원에서 60만원까지 평균 34±13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산후조리 도우미의 이용에 12명이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평균 69±50만원을 책정하였고, 기타 항목으로 6명이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평균 42±33만원을 책정하였다(표 8).

표 8. 산모군이 책정한 산후조리 예산

	No. of respondent	Min.	Max.	Ave.
산후조리원	47	100만원	500만원	173±98만원
산후조리원 외 요양	18	10만원	150만원	64±39만원
한약을 통한 관리	21	5만원	60만원	34±13만원
도우미	12	30만원	200만원	69±50만원
기 타	6	10만원	100만원	42±33만원
총 예산	48	110만원	650만원	233±118만원

8) 산모군의 산후조리원 퇴원 후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의 유무

산모군은 산후조리원 퇴원 후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무응답 1명을 제외한 53명 중,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4명으로 64.2%였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9명으로 35.8%였다.

9) 산모군의 산후조리원 퇴원 후 산후조리를 도와 줄 사람의 관계

산모군은 산후조리원 퇴원 후 산후조리를 도와 줄 사람의 관계를 묻는 질문

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34명 중, 친정어머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14명으로 41.2%, 시어머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7명으로 20.6%, 친정어머니 외 친가식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6명으로 17.6%, 산후조리 도우미라고 응답한 경우가 5명으로 14.7%, 시어머니 외 시댁식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2명으로 5.9% 분포하였다(표 9).

표 9. 산모군이 산후조리원 퇴원 후 산후조리를 도와 줄 사람의 유형

	No.	%*
친정어머니	14	41.2
친정어머니 외 친가식구	6	17.6
시어머니	7	20.6
시어머니 외 시댁식구	2	5.9
산후조리 도우미	5	14.7
Total	34	100.0

\* 응답자에 대한 유효백분율

10) 산후조리원 선택에 있어 중요한 조건

산모군이 생각하는 산후조리원 선택에 있어 중요한 조건을 중복선택하게 하여 나타난 결과는 각 문항에 대하여, 신생아 관리의 전문성 및 숙련도를 선택한 경우가 52명으로 96.3%, 산모관리의 전문성 및 숙련도를 선택한 경우가 46명으로 85.2%, 시설의 위생을 선택한 경우가 29명으로 53.7%, 직원의 구성분포, 연고지와의 거리를 선택한 경우가 각각 17명으로 31.5%, 비용, 의료기관 연계여부를 선택한 경우가 각각 16명으로 29.6%, 교육프로그램의 충실도를 선택한 경우가 8명으로 14.8%, 주변의 권유를 선택한 경우가 5명으로 9.3%, 기타 1.9%로 나타났다.

미혼여성군은 산후조리원 선택에 있어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중복선택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산모 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숙련도를 선택한 경우가 91.3%, 신생아 관리의 전문성 및 숙련도를 선택한 경우가 58.7%, 시설의 위생을 선택한 경우가 53.3%, 직원의 구성분포를 선택한 경우가 20.7%, 의료기관 연계여부를 선택한 경우가 19.6%, 비용을 선택한 경우가 16.3%, 연고지와의 거리를 선택한 경우가 10.9%, 교육프로그램의 충실도를 선택한 경우가 7.6%, 주변의 권유를 선택한 경우가 2.2%, 기타 1.1% 분포하였다(표 10).

표 10. 산후조리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중복선택)

	산모군		미혼여성군	
	No.	%	No.	%
신생아 관리의 전문성 및 숙련도	52	96.3	54	58.7
산모 관리의 전문성 및 숙련도	46	85.2	84	91.3
시설의 위생	29	53.7	49	53.3
직원의 구성분포	17	31.5	19	20.7
비용	16	29.6	15	16.3
연고지와의 거리	17	31.5	10	10.9
의료기관 연계여부	16	29.6	18	19.6
교육프로그램의 충실도	8	14.8	7	7.6
주변의 권유	5	9.3	2	2.2
기타	1	1.9	1	1.1
Total	54	100.0	92	100.0

11) 산후조리원 재원 중 산모와 신생아의 생활양식의 유형  
 산후조리원 재원 중 산모군의 산모와 신생아의 생활양식 유형을 묻는 질문에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따로 생활한다는 응답이 42명으로 79.2%, 산모와 신생아가 같이 생활한다는 응답이 11명으로 20.8%였다.

12) 산모군의 산후조리원 재원 중 산모와 신생아의 생활양식 선호도 및 그 이유

산모군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같이 생활하는 것과 따로 생활하는 것의 2가지 경우의 생활양식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따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60.4%, 산모와 신생아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32.1%, 어느 것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3.8%, 기타가 3.8% 분포하였다(표 11).

산모가 신생아와 따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그 이유는 산모의 휴식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51.6%, 신생아 관리에 미숙하고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25.8%, 신생아의 위생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16.1% 있었다.

산모와 신생아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그 이유는 모유수유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70.6%였고, 신생아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9.4% 있었다.

표 11. 산후조리원 재원 중 산모와 신생아의 생활양식의 선호도

	No.	%
산모와 신생아가 따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	32	60.4
산모와 신생아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선호	17	32.1
어느 것도 상관없다	2	3.8
기타	2	3.8
Total	53	100.0

\* 응답자에 대한 유효백분율

13) 산모군이 재원중인 산후조리원 신생아관리 만족도

산모군은 재원중인 산후조리원 신생아관리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아주 만족한다는 응답이 42.6%,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이 37.0%, 보통이라는 응답이 16.7%, 약간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9%, 아주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9%로 나타났다.

14) 산모군이 생각하는 향후 출산 시 산후조리에 적절한 장소

산모군에게 다음번에 출산할 경우 산후조리에 적절한 장소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 2명을 제외하고, 산후조리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2명으로 80.8%, 양방병원과 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87%, 한방병원, 조산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8%였다. (표 12).

표 12. 산모군이 생각하는 다음 출산 시 산후조리에 적절한 장소

	No.	%*
산후조리원	42	80.8
양방병원	3	5.8
집	3	5.8
한방병원	2	3.8
조산원	2	3.8
Total	52	100.0

\* 응답자에 대한 유효백분율

15) 향후 출산시 이용할 산후조리원의 유형

산모군에게 다음번 출산할 경우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어떤 유형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 2명을 제외하고 산부인과 의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1명으로 40.4%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12명으로 23.1%, 조산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명으로 7.7%, 한방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명으로 9.6%, 한의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명으로 3.8%, 양방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1명으로 1.9%, 어느 것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5명으로 9.6%였다.

미혼여성군에게 향후 출산 시 이용할 산후조리원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산부인과 의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5.7%, 한방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9.3%, 양방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12.0%, 한의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3%, 조산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1.1%, 어느 것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7.6%, 기타 1.1% 분포하였다(표 13).

표 13. 향후 출산시 이용할 산후조리원 유형

	산모군		미혼여성군	
	No.	%*	No.	%
한방병원에서 운영	5	9.6	27	29.3
한의원에서 운영	2	3.8	3	3.3
양방병원에서 운영	1	1.9	11	12.0
산부인과 의원에서 운영	21	40.4	42	45.7
간호사가 운영	12	23.1	0	0.0
조산사가 운영	4	7.7	1	1.1
기타	2	3.8	1	1.1
어느 것도 상관없다	5	9.6	7	7.6
Total	52	100.0	92	100.0

\* 응답자에 대한 유효백분율



16) 산모군의 출산 후 조리를 위한 한방의료기관 이용계획 유무

산모군은 출산 후 조리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19명으로 35.2%, 없다는 응답이 15명으로 27.8%, 모르겠다는 응답이 20명으로 37.0% 분포하였다.

17) 출산 후 한약을 복용할 계획 유무

산모군은 출산 후 한약을 복용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5명으로 66.0%,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0명으로 18.9%,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8명으로 15.1% 분포하였다.

미혼여성군은 향후 출산 후 조리를 목적으로 한약 복용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9.8%,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5.2%,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25.0% 분포하였다(표 14).

표 14. 출산 후 한약복용계획

	산모군		미혼여성군	
	No.	%*	No.	%
있 다	35	66.0	55	59.8
없 다	10	18.9	14	15.2
모르겠다	8	15.1	23	25.0
Total	53	100.0	92	100.0

\* 응답자에 대한 유효백분율

18) 출산 후 한약을 복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목적

출산 후 한약을 복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을 묻는 질문에 산모군의 경우 중복선택으로 유효응답 중, 체력의 회복을 위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45.9%, 惡露 및 瘀血 배출을 원활히 하게 위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24.3%, 산후풍 예방

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1.6%, 모유수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8.1%였다.

미혼여성군의 경우 중복선택으로 유효응답 중, 체력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65.0%, 오로 및 어혈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가 20.0%, 모유수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7%,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5.0%, 산후풍 예방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3.3% 분포하였다(표 15).

표 15. 출산 후 한약 복용 목적

	산모군		미혼여성군	
	No.	%*	No.	%*
체력의 회복	17	45.9	39	65.0
원활한 오로 및 어혈 배출	9	24.3	12	20.0
산후풍 예방	8	21.6	2	3.3
원활한 모유수유	3	8.1	4	6.7
다이어트	0	0.0	3	5.0
Total	37	100.0	60	100.0

\* 응답자에 대한 유효백분율

19) 출산 후 한약을 복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

산모군은 출산 후 한약을 복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효응답자 중,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0.0%, 살이 찌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3.3%, 모유 수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11.1%, 금전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5.6% 분포하였다.

미혼여성군은 출산 후 한약을 복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효응답 중, 약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29.2%, 살

이 찢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25.0%,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20.8%,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6.7%, 기타가 8.3% 분포하였다(표 16).

표 16. 출산 후 한약을 복용할 계획이 없는 이유

	산모군		미혼여성군	
	No.	%*	No.	%*
필요성을 못 느껴서	9	50.0	5	20.8
살이 찢 것 같아서	6	33.3	6	25.0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0	0.0	7	29.2
모유 수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2	11.1	4	16.7
금전적 부담	1	5.6	0	0.0
기 타	0	0.0	2	8.3
Total	18	100.0	24	100.0

\* 응답자에 대한 유효백분율

#### 20) 미혼여성군의 산후풍 인식정도

미혼여성군에게 산후풍에 대한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1%,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3.9%, 명칭은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9.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9.3%, 전혀 모르겠다는 응답이 6.5% 분포하였다(표 17).

표 17. 미혼여성군의 산후풍 인식 정도

	No.	%*
잘 알고 있다	1	1.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2	23.9
명칭은 들어본 적이 있다	36	39.1
잘 모르겠다	27	29.3
전혀 모르겠다	6	6.5
Total	92	100.0

21) 차후 산후풍 발생시 치료기관선택 산모군은 차후 산후풍 발생시 치료기관을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방의료기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9.2%, 양방의료기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5%,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7.3%, 기타 1.9% 분포하였다.

산후풍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미혼여성군에게 만약 향후에 산후풍이 발생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생각인가를 질문한 결과, 한방의료기관을 선택한 경우가 유효응답의 46.7%, 양방의료기관을 선택한 경우가 38.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5.0% 분포하였다(표 18).

표 18. 산후풍 발생시 선택할 치료기관

	산모군		미혼여성군	
	No.	%*	No.	%*
한방의료기관	36	69.2	28	46.7
양방의료기관	6	11.5	23	38.3
기 타	1	1.9	0	0.0
모르겠다	9	17.3	9	15.0
Total	52	100.0	60	100.0

\* 응답자에 대한 유효백분율

## IV. 考 察

김주형 등<sup>10)</sup>의 보고에 의하면 남편 외 산후조리를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81.4%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였고, 3명인 경우에는 20%만이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정도로 사회적 지지망(social network)의 정도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 가능성에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망(social network)의

감소 및 경제 및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건강유지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sup>11)</sup> 산모의 산후조리원의 이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욕기 초반에 산모는 가장 큰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데, 산후조리원에서 이 기간을 보내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므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산후조리를 위해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에 위치한 사설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 54명과 근무지나 거주지가 서울인 미혼여성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각 대상군의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여 취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후조리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산모군에서 96.3%, 미혼여성군에서 95.7%가 산후조리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모든 조사군에서 대다수의 조사대상자들이 산후조리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오<sup>12)</sup>, 이<sup>13)</sup>의 연구와 결과가 같았다(표 2). 특히 이 결과는, 한국여성에게는 산후조리는 가족이나 그 지역의 어른들로부터 수직적으로 그리고 이웃에서 이웃으로 수평적으로 전파된 하나의 '口傳'으로 그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산후조리를 잘 하지 못한 것과 산후병이라 불리는 후유증과의 원인 결과적 관계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은 산모에게 산후조리의 노하우와 관련하여 불안, 염려, 욕구, 기대를 가져오게 하는데, 산모를 돌볼 때 이러한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sup>14)</sup>이

라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반적인 인식이 산후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산후조리를 필요한 이유로는 산모의 건강, 임신전 상태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산후풍 예방을 위해서라고 대다수의 응답자가 말하였다(표 3).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33.3%가 산후조리를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16.7%가 신생아 양육에 자신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김주형 등<sup>10)</sup>의 보고에서처럼 사회적 지지망의 정도가 산후조리원에서의 조리를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48.1%가 산후조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 수준 향상과 의료욕구 증가 등으로 좀 더 전문적인 관리를 받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찾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표 6).

산모군의 월 평균 수입과 산모 본인이 책정한 산후조리 총예산과의 관계는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한 결과 F 값이 2.298, sig. = .091으로 95% 유의수준에서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모군은 월 평균 수입과 관계없이 산후조리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모군이 생각하는 월 평균 수입에 따른 걱정 산후조리 총비용과의 관계는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보면 카이스퀘어 값이 17.323 (sig. = .138)로 95% 유의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이지 않으므로 산모군은 걱정 산후조리 총비용을 감안할 때 본인의 월평균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모군에서 실제 본인의 산후조리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총 110만원에서 650

만원으로 평균 233±118만원이었다. 그 중 한약을 통한 관리에 예산을 배정한 경우가 25.0%로 15만원에서 60만원까지 평균 34±13만원을 배정하였다. 이는 출산 후 한약을 복용할 계획이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 66.0%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실제 예산을 배정한 비율을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표 8, 표 14).

출산 후 조리를 위한 한약 복용 계획 여부에 관해서는 산모군의 66.0%와 미혼여성군의 59.8%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복용목적으로는 체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두 군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 것으로 봐서 산모의 경우는 경험적으로 미혼여성의 경우 막연하게 혹은 주위 사람의 경우를 바탕으로 하여 출산 후 체력저하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표 14, 표 15).

출산 후 조리를 위한 한약 복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산모군의 경우 18.9%, 미혼여성군의 경우 15.2% 분포하였고, 그 이유로는 산모군의 경우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미혼여성군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우려되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두 군 모두 두 번째 많은 이유로는 살이 쪼갤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산후조리분야에서 한약의 투약을 늘리려면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한약의 효능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표 14, 표 16).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생활양식의 선호도에서 산모군의 경우 산모와 신생아가 따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경우가 60.4%로, 산모와 신생아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

한 경우가 32.1%에 인 것에 비하여 높은 비율이었다. 이것은 산모군의 경우, 모유수유와 신생아와의 친밀감 형성 등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신생아 관리에 미숙한 측면과 산모의 휴식을 필요로 하는 측면을 더 크게 생각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표 11).

만약 다음번에 출산을 하게 된다면 산후조리에 적정한 장소로 생각되는 곳에 대한 질문에 산모군의 80.8%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였다. 다음 출산시 이용할 산후조리원 유형 혹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산후조리원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산모군은 산부인과 의원이나 간호사가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미혼여성군의 경우는 산부인과 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여, 두 조사대상군에서 선호하는 양상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주목할 점은 산모군의 경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산모군의 경우는 13.4%에 불과하여, 한의사가 단독으로 산후조리원을 개설할 경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타 기관이나 타 의료인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한데, 김소연 등<sup>15)</sup>의 연구에서도 한의사 중심으로 산부인과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와 영양사, 물리치료사 및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표 12, 표 13).

출산 후 한약을 복용 계획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 산모군의 66.0%, 미혼여성군의 59.8%가 복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향후 산후풍이 발생할 경우 이용할 의료기관으로 한방의료기관을 선택한 경우가 산모군의 69.2%, 미혼여성군의 46.7% 분포하여 산후관리 부분에 있

어서 한방의료는 비교적 긍정적 이미지였다(표 14, 표 18).

한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산모의 경우에는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산후조리원에 재원 중인 산모로, 미혼여성의 경우 거주지나 근무지가 서울인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한정된 범위가 대상군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 V. 結 論

본 연구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산후조리를 위해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에 위치한 사설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 54명과 근무지나 거주지가 서울인 미혼여성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각 대상군의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산후조리의 필요성은 산모군, 미혼여성군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다.
2. 산후조리원의 선택 기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산모군, 미혼여성군 모두 산모와 신생아 관리와 위생을 중요시하였다.
3. 산모군은 경제생활 수준과 상관없이 산후조리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다.
4.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생활양식의 선호도에서 산모군의 경우 산모와 신생아가 따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경우가 60.4%로, 산모와 신생아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경우가 32.1%에 인 것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나타나 산

모들이 산후에 신생아 관리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휴식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각 조사대상군별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산후조리원 운영모델에 대해 의견차가 있었으며, 특히 산모군의 경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산모군의 경우는 13.4%에 불과하여, 한의사가 단독으로 산후조리원을 개설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6. 출산 후 조리를 위한 한약 복용 계획 여부에 관해서는 산모군의 66.0%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8.9%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복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 50%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하고 33.3%가 살이 쪼갤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여, 이 부분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차후 산후풍이 발생할 경우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산모군의 경우 69.2% 분포하였고, 미혼여성군의 경우 46.7% 분포하여, 출산 후 관리에서 한방의료가 긍정적인 이미지이며, 산후관리에서 한방의료의 영역을 확대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인식되었다.

□ 투 고 일 : 2006년 7월 26일

□ 심 사 일 : 2006년 8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8월 09일

## 參考文獻

1. 한의부인과학 편찬위원회. 한의부인과학(下).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01:85.
2. 나건영. 새로운 여성의학. 서울. 동지사. 1980:211-230.
3. 송병기. 한방부인과학. 서울. 행림출판사. 1990:98-108.
4. 허지원, 김성란. 산후조리의 실태 및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1:14(1):409-424.
5. 최정. 산후조리원 프로그램에 대한 산모의 요구도 및 만족도.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6. 박광숙. 일부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의 산후조리 서비스 요구 및 만족도.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1-4
7. 정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의 간호요구 및 만족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6-7.
8. 황나미, 신손문, 심은혜. 산후조리서비스 표준화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30:54.
9. 정우석, 조홍윤, 유심근. 산후조리원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향 및 관리지침에 대한 고찰. 대한기공의학회지. 2002:6:181-206.
10. 김주형 등.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1:7(1):57, 63.
11. 程國彭. 醫學心悟. 서울. 문광사. 1994:256-257.
12. 오승희. 산후관리 인식도와 산후풍의 실태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0:13(2):482-500.
13. 이태균. 산후관리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1:14(1):211.
14. 유은광. 여성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행위:산후조리의 의미 분석. 간호학탐구. 1993:2(2):38-39, 60-62.
15. 김소연, 조홍윤, 손희천. 산후조리에 대한 전통·양방·한방적 비교와 한방산후조리원의 운용에 대한 고찰. 대한기공의학회지. 2001:5:199-228.